

남촌 :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과 도시구조의 변화

김기호*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의 출발이 어디이며 무엇이 그를 탄생하도록 하였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근대의 출발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말, 대한제국기의 도시계획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아 미리 속단할 우려가 있으나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대 그 당시의 우리 도시계획이 서구에서와 같이 산업혁명의 진전과 그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도시내 공장의 건설, 그리고 위생, 주택, 계층 등 여러 도시문제의 발생에 대한 대응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¹⁾.

그러나 서울의 인구증가와²⁾ 위생상의 문제는³⁾ 분명히 중대한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계획에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도시 계획적 대책은 도로를(함께 하수도정비) 정비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근대화의 초기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와 그 아래에서 전개된 도시계획은 그 이루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구의 근대도시계획의 탄생을 그 때까지의 시장의 실패에 대한 안티테제로 보고 그에 따라 강력한 공공개입에 의해 도시의 물적 개발을 총체적으로 계획적 콘트롤 아래

*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 1) 김광우의 대한제국기의 도시계획연구는 도시계획이 왕권의 강화 내지는 상징화에 큰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 1899년의 서울인구는 210, 922명이나 1910년 합병시의 인구는 278, 958명으로 10여년 사이에 32%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1994. 7) PP. 14-15
- 3) 1879년 최초로 콜레라가 상륙, 1886, 1889, 1890에 연이어 전국적으로 큰 인명피해, 김기호(1995), PP. 44-45

두고자하는 사회적 기술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⁴⁾ 우리의 경우 시장이 작동해 실패해 보기도 전에 국가의 실패로 인하여(국권상실) 강력한 공공이(식민당국) 개입하게 되는 식민적 기술로 도시계획이 사용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민당국이 그 힘의 중심을 두고 있던 도시 서울(경성), 그리고 그들의 주 활동무대인 남촌에서 어떤 식의 도시계획을 추구하고 도시구조가 형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일 것이나 서울의 도성내부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공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필요시 북촌과 함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성내 청계천 이남의 남촌에 대하여 일제시대의 도시계획과 도시구조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공공에 의하여 수립, 시행된 도시관리를 위한 물적 수단을 의미하며, 도시구조의 변화란 이러한 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일어난 공공과 민간의 행위에 의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 도시구조는 가로망의 형성/변화, 도시주요시설의 형성/변화 등의 물리적 구조를 중심으로 보되 사람들의 거주동 사회적 측면도 자료가 뒷받침되는 대로 함께 고려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남촌을 주로 분석하되 필요시 북촌과 함께 또는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일제시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내용을 일제시대 주요 시기별 지도를 바탕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내어 자료들을 재구축 하여 분석하였다.

2. 일제시대 서울의 도시계획과 남촌

일제시대 서울에서의 도시계획은 1912년 10월 7일 조선총독부의 “시구개정”에 관한 훈령과 이에 따른 1912년 11월 6일의 경성부 시구

4) 와다나베 준이치(1993), P. 29

개수예정계획노선의 고시로 시작된다. 식민지 초기의 서울의 도시계획으로써 시구개정은 가로의 직선화·확폭·신설 등 가로정비를 주로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1912년에 시작하여 1936년까지 계속된다. 오늘날 서울중심부의 주요 가로망은 시구개정에 의해 그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시구개정 다음에 이어지는 가로망계획도 시구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시구개정과 함께 3차례 도시계획안⁵⁾이 수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되다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되면서 1910년대부터 시행되어오던 시구개정을 위한 사업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계획으로 대체된다. 시가지계획령은 1919년 제정된 일본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 건축물법의 두 개의 법내용을 혼합해 놓은 것으로⁶⁾ 가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지구제 및 건축물취제에 이르기까지 의욕적인 도시계획으로 구성된다.⁷⁾

1910년대의 시구개정사업이 경성시가지내의 도심부에 관한 도로계획사업인 반면에 1930년대의 시가지 계획령은 변두리 각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표될 수 있다.

한편, 1910년대의 주요한 도시계획으로 시구개정 이외에 「시가지 건축물취제규칙」(1913. 2. 25)을 들 수 있다. 시구개정이 도로 등 중요 도시시설의 계획 확보에 중점이 놓여있고 공공적 사업의 성격으로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비해 시가지 건축취제규칙은 개별 건축물의 건설을 규제하며 일부 지역·지구제적인 성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⁸⁾

이처럼 일제시대 서울의 도시계획은 1912년의 시구개정사업, 1913

5) 경성도시계획안

제 1차안 : 1926년

제 2차안 : 1928년 3월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 발간

제 3차안 : 1930년 3월 「경성도시계획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됨

6) 손정목(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P. 187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백서 P. 35 / 이경수(1991), P. 27 재인용

8) 김기호(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P. 49

년의 시가지 건축취제규칙 그리고 1934년 시가지계획령 이후 1936년부터 시작된 경성시가지계획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획내용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성시구개정사업

시구개정은 1912년 총독부훈령(제9호)으로 각 지방에 시달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에 있어서 주요(樞要)한 시가지의 시구개정 또는 확장을 할 때에는 그 계획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미리 인가를 받을 것. 다만 일부의 輕易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이미 1911년 4월 17일 제령 제3호로 공포된 토지 수용령과 부령 51호의 도로규칙 그리고 훈령 제 37호의 도로수축표준 등으로 도로 등의 시설을 위한 재산권적·기술적 측면의 조치를 취한 후 향후 일어나는 시가지내의 도로의 개설을 계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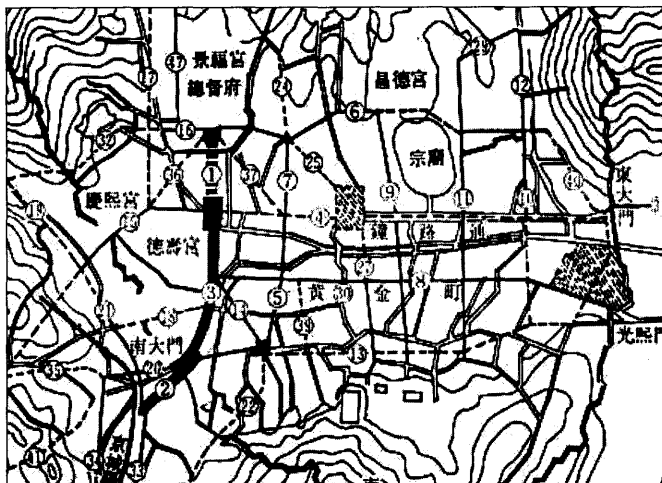
이러한 시구개정사업은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노선 29노선을 발표하고 그 후 다섯차례의 개정⁹⁾을 거쳐 모두 47개 노선¹⁰⁾이 된다.

시구개정사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로 중심가로의 신설 및 노폭확장과 직선화로서 주요한 계획적 특징으로는 계획적인 격자형 직선도로망,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가로망 구상, 주요 결절점의 광장설치 등이다.

일제초기 특별한 주요가로는 없었던 남촌의 주요 가로망의 형성은 주로 1912년에 계획된 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남촌의 주요 가로망(을지로, 종로4~본정4, 종로3~본정4~대화정)은 1921년 이전에 모두 형성되며 그 이후로는 중규모의 도로나 부분적인 확장 내지는 마른내길 등이 형성되고 있다.

9) [부록1] 시구개정의 경과 참고

10) 노선번호는 47번까지이나 1919년 3개노선이 삭제되어 노선수는 44개이다.



<그림 1> 경성시구개수에정계획노선

자료 : 경성도시계획조사서(1928)

2) 시가지 건축 취제 규칙

1935년까지 서울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룬 것은 위의 시구개정 외에 시가지 건축취제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지구제적인 조항들이었다. 시구개정훈령 발표 바로 다음 해인 1913년 2월에 조선총독부는 총독부령 제11호로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¹¹⁾을 발표하고 있다.

이 규칙은 바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11) <시가지 건축취제규칙>

제1조 건축허가 제2조 준공검사

제3조 1. 건폐율 2~3. 건축선 4. 접도 5. 바닥높이 6. 부지높이 7. 배수설비 8. 식수 9. 변소
10. 분뇨 11. 굴뚝설치 12. 불연·방화 13. 피뢰장치 14. 유해시설의 설치 15. 피난설비

제4조 지구제 - 건축물의 제한사항 : 방화/고도/불받침/축간의 설치

제5조 건축허가 제6조 지역제 - 시가지 내 공장설치 지역의 제한

제7조 위생의 필요시 건축정지, 건축취소 가능

제8조 가설건축물에는 적용안함 제9조 벌금

건폐율, 건축선, 건축물의 재료, 부대설비, 미관, 화재방지 등을 규제하는 한편, 오늘날의 개념에서의 방화지구, 미관지구, 준공업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건축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한 것이었다.¹²⁾

1914년 5월 30일 총독부고시 제 89호에 의해 지정된 도성내 공장 등 공안위생상 위해(危害) 건물가능지역은 돈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종로육정목·황금정육정목·황금정칠정목이며 그 중 황금정육·칠정목내 전차로 이남의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이를 도면에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건축취제규칙에 의해 공장 등의 위해건물이 허가된 지역

3)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도시계획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 발표되고 경

12) 손정목(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P.109

성의 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 1936년 시가지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이에 이어 총독부고시로 1936년 12월 가로망과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내용이 발표되고, 1939년 9월 지역제가 확정되었으며, 1940년 3월에는 공원계획이, 1941년 3월에는 풍치지구가 각각 확정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시가지 계획령은 계획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 지역제, 공원, 풍치지구가 나뉘어 성안 검토된 후에 별도로 발표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¹³⁾

용도지역¹⁴⁾에 있어서 1913년에 제정된 시가지건축취체규칙에 근대적 개념의 지역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가지계획령으로 용도지역제의 법적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1936년에 당시의 인구증가율과 상업 및 공업추세를 검토하여 1939년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상업, 공업, 주거지역을 지정하여 처음으로 지역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계획가로는 1936년 12월 26일 결정, 공포되었는데 12m이상의 계획도로가 종래의 47개 노선에서 220개 노선으로 크게 확장되었다.¹⁵⁾

시가지계획령의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경성에 계획된 지역¹⁶⁾은 대부분 도성외곽부분이었는데 그 중 남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신당동 일대가 있다. 이는 1931년 동양척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가 장충동 1가(서사헌정)에 6천평, 신당동에 40,000평의 토지를 개발하여 고급 주택화한 것이다.¹⁷⁾ 이것은 30년대 이후에 경원선·중앙선으로 왕십리·청량리역이 설치되어 도성밖 동쪽으로의 교외화 붐이 일고 또한 일인의 경성부 거주지역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1), 서울600년사 제4권, P. 378

14) 그 구분으로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혼합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풍치, 미관, 방화 및 풍치지구를 설정하여 각 지역지구의 안법, 관리, 또는 목적에 맞지않는 건축물의 축조를 허가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법제내용과 방법을 같은 시행규칙과 경찰령으로 밝혀두었다. (이경수(1991) P. 30)

15) 서울특별시(1962), 서울도시계획연혁 PP. 35-36

16) 토지구획정리 지역을 살펴보면 1937년 1월 19일에는 반대, 공덕, 청량리, 사근, 한남, 신당, 용두지역이 지정되었고, 1937년 2월 2일에는 영등포, 대현, 돈암이 구획정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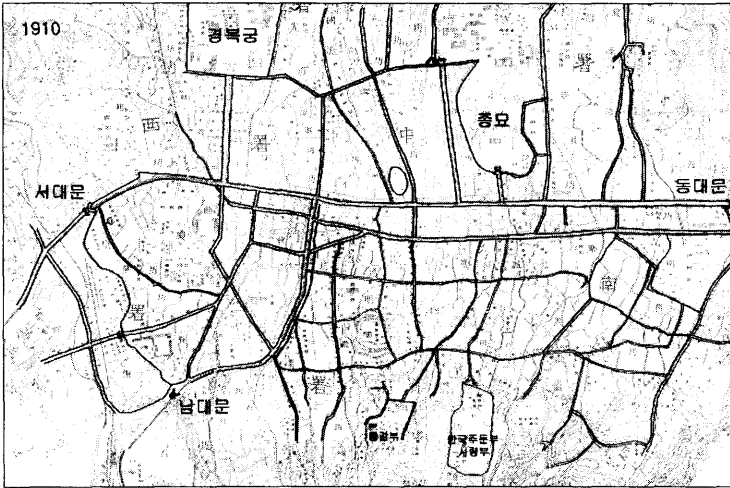
17)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도시사회상연구 IV. 3

3. 일제시대 남촌 도시구조의 변화

1) 가로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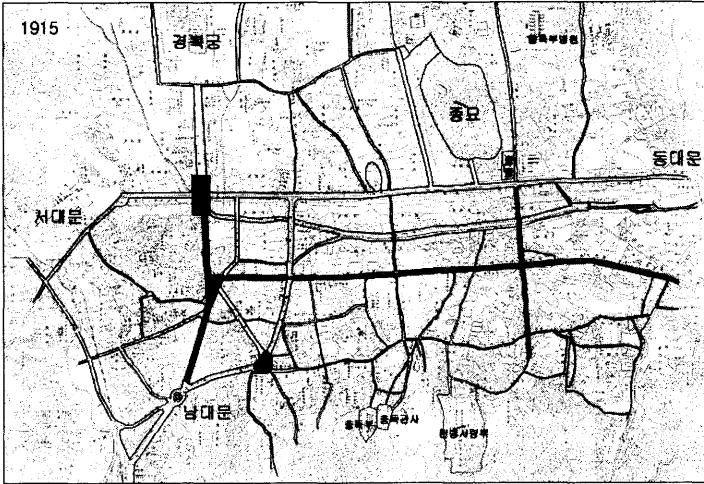
일제시대 각 시기별 지도를 비교하여 가로망의 변화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1910년부터 1936년까지의 가로망의 변화로 앞에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가로망의 형성·변화는 주로 1912년에 발표된 경성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가로망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일제시대 가로망 형태에서 보이는 특성은 첫째, 불규칙한 형태에서 직선격자형의 가로망으로의 변화와 둘째, 남북방향의 도로가 형성된 후에 동서방향의 가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남촌·북촌의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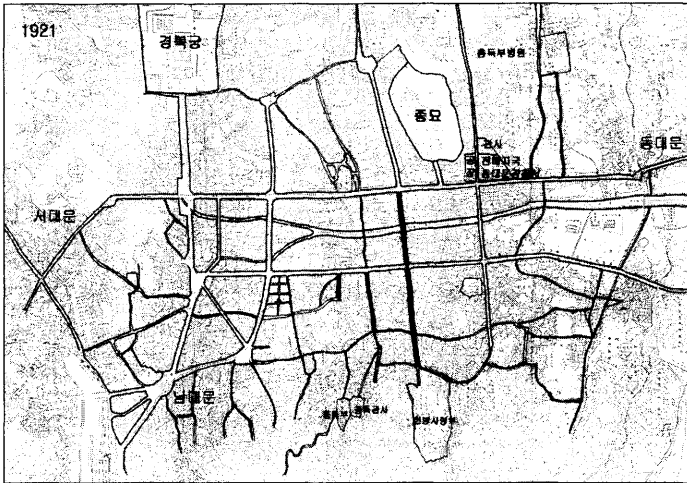
<그림 3> 가로망도 1 - 1910년

자료 : 경성시가전도(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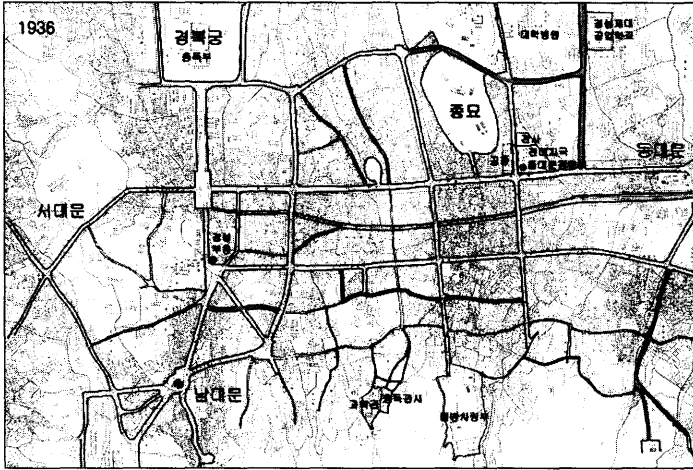
<그림 4 > 가로망도 2 - 1915년

자료 : 일만분의 일 조선지형도집성-경성(1915)



<그림 5 > 가로망도 3 - 1921년

자료 : 일만분의 일 조선지형도집성-경성(1921)



<그림 6> 가로망도 4 - 1936년

자료 : 지번구획입경성정도(1936)

<표 1> 일제시대 남촌의 가로망 변화내용

년도	가로망 변화 내용
1910 → 1915	을지로 직선화 (1911. 을지로 확폭 21.8m)
	세종로의 변화 : 세종로 광장조성, 대안문의 후퇴, 대안문 앞 광장조성
	11번 노선의 연장 (1912~1915년 건설)
1915 → 1927	9번(돈화문로) 노선의 연장 (1913~1921년 건설)
	조선은행부근의 광장 및 중심지 형성(조선은행, 우편국, 백화점등)
1927 → 1936	마른내 길의 형성
	현 북창길(명동길의 연장)의 확폭
	현 홍인문로~장충단길/동호로의 일부 형성

<표 2> 일제시대 북촌·남촌 가로망 변화 비교

지역	구분	수	노 선	비고
북 촌	신설	1	돈화문~대학병원 앞 (6번노선 : 현 을곡로의 일부)	
	확장 직선화	1(2)	종로~송현동(안국동로타리) (7번노선 : 현 우정국로)	():혜화동일대, 경성제대, 총독부병원등의 시설입지
			종로5정목~혜화동 (12번노선 : 현 대학로)	
창경궁~혜화문 (29번노선)				
남 촌	신설	3	종로4~본정4 (11번노선 : 현 배오개길)	
			종로3~본정4~대화정 (9번 노선 : 현 돈화문로)	
			마른내길	
	확장 직선화	3	황금정길 (8번 노선 : 현 을지로)	
			영락정~본정 3 (27번 노선 : 현 수표교다리길)	
		황토현광장~남대문 (3번노선 : 태평로)		

- * 11번 노선의 연장 : 대학병원~종로4 → 대학병원~종로4~본정4
- * 9번(돈화문로) 노선의 연장 : 돈화문~종로3 → 돈화문~종로3~본정4~대화정
- * 각 도로의 형성시기는 정확한 공사연도가 나타난 자료와 위의 지도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표기한 것임

먼저 직선격자형의 가로망 변화에서 신설된 가로와 기존 가로가 확장(직선화)되는 가로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북촌보다 남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참고)

북촌에서 신설되는 노선은 돈화문~대학병원 앞 한 곳뿐이며, 기존 노선 중 확장되는 노선은 종로~송현동, 종로5정목~혜화동 그리고 창경궁~혜화문 3곳이다.

반면에 남촌에서는 크개는 종로 3가와 4가에서 본정통까지 연장되는 2개의 남북도로와 작개는 동서방향의 마른내길이 신설되었고, 기존노선의 확장·직선화되는 가로는 황금정길 전구간을 포함하여 영락정~본정 3과 황토현 광장~남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북촌의 12, 29번 노선은 혜화동일대의 가로들로서 혜화

동 일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병원 및 경성제국대학 등 일인을 위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성격상 일인을 위한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협의의 북촌지역으로 살펴볼 때에도 제외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제시대 가로의 신설 및 확장은 구체적 노선별 비교를 통해 북촌에 비해 남촌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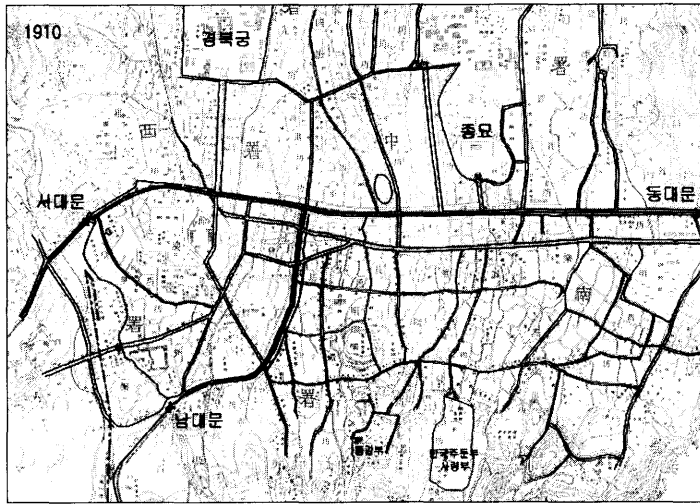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북방향의 가로가 형성된 후에 동서방향의 가로가 형성되는 가로변화의 특징을 지도를 통해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21년 전후로 나누어지고 있다. 1921년 이후로 을지로를 제외하고 동서방향으로 생기는 도로로는 대표적으로 을곡로의 연장(1930~31)을 들 수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두 지점을 살펴보면 당시의 주요 공공시설인 총독부와 대학병원(이전 총독부병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차노선의 변화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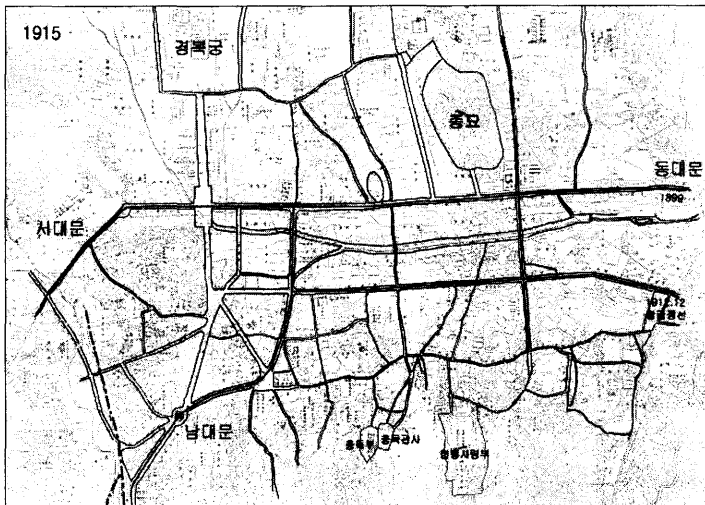
서울에서의 전차는 1899년 서대문~청량리간의 노선이 개설된 이래 일제시대에 들어서 을지로의 확장과 함께 남촌(황금정선)에 전차가 들어서고 이후로 종로4가에서 본정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생긴다(그림7).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일제초기 가로망의 변화와 같이 가고 있다. 그 위에 종로~송현동(현 우정국로)(그림8), 광화문선의 중심부의 연결노선과 서대문~남대문간(1920), 동대문~광희문선(1921), 장충단선(1926)의 도성 내 외부노선이 추가 신설된다. 1926년 이후로 도성 내에서는 황토현광장과 남대문을 연결하는 노선이 마지막으로 생기고 있다.

연결과 이동의 의미를 갖는 전차노선의 변화에 있어서 가로망과 같이 당시 거주인구가 적은 동승동으로의 연계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반대로 광화문선이 늦게 남대문과 연장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8) [부록2] 전차노선의 변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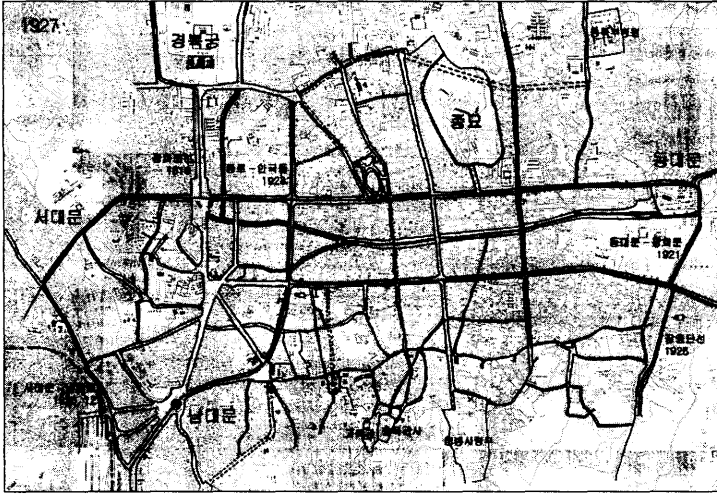


<그림 7> 전차노선도 - 19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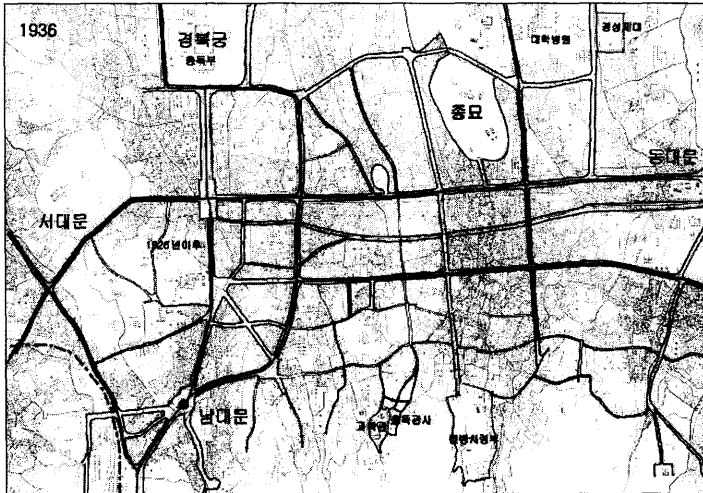
<그림 8> 전차노선도 - 1915년

자료 : 경성시가도 1915



<그림 9> 전차노선도 - 1927년

자료 : 경성시가지도



<그림 10> 전차노선도 - 1936년 (1928 : 경성 시내버스 운행개시)

3) 주요 근대적 도시시설의 입지¹⁹⁾

1926년 총독부의 경복궁 이전은 일제가 조선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권력의 이동은 도시공간에서도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편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대륙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하면서 조선은 전시체제로 들어선다. 또한 근대적 도시계획이 법제도적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구역의 고시로 1937년은 경성부 서울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시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 도시시설의 신축단계를 1923~1925년, 1926~1936년, 1937~1944년 3단계로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크게 공공시설, 업무/상업시설, 병원/복지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교육시설로 구분하여 남촌의 근대건축물의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첫째, 1923~1944년 사이 남촌과 북촌에 신설된 시설 수는 각각 160개와 73개로 남촌이 북촌에 비해 약 2.3배 많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축된 건축물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업무 시설이 78개로 가장 많이 신축되어 20년 중반이후 상업/업무 기능의 증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시설(32개), 문화시설(23개), 교육시설(21개), 병원/복지시설(16개)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신축된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 상업/업무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이 북촌에 비해 남촌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부록3] 일제시대 도시시설의 입지 (그림1~그림4) 참고
[부록4] 일제시대 근대건축물 신축현황 참고

<표 3> 일제시대 근대건축물 신축현황

	년도	공공	상업/업무	병원/복지	문화	교육	기타	소계
남 촌	1923-1925	10	6	·	1	1	3	21
	1926-1936	10	36	6	15	11	27	105
	1937-1944	·	15	2	3	4	10	34
	소계	20	57	8	19	16	40	160
북 촌	1923-1925	2	1(1)	·(2)	·	·	·	3(5)
	1926-1936	10	20(23)	7(17)	1	5(22)	22	65(95)
	1937-1944	·	·	1(1)	3	·(1)	1	5(6)
	소계	20	21(24)	8(20)	4	5(23)	23	73(106)
합계	32	78(81)	16(28)	23	21(39)	63	233(266)	

	년도	공공	상업/업무	병원/복지	문화	교육	기타	소계
소 공 동	1923-1925	6	·	·	·	1	·	7
	1926-1936	1	5	1	1	3	3	14
	1937-1944	·	1	·	1	3	2	7
	소계	7	6	1	2	7	5	28

	년도	공공	상업/업무	병원/복지	문화	교육	기타	소계
동 송 동	1923-1925	·	·	2	·	·	·	2
	1926-1936	·	3	10	·	17	·	30
	1937-1944	·	·	·	·	1	·	1
	소계	·	3	12	·	18	·	33

* () : 동송동일대 포함시

* 자료제공(富井正憲, 李美璟(1987)) :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근대건축의 기초적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 거주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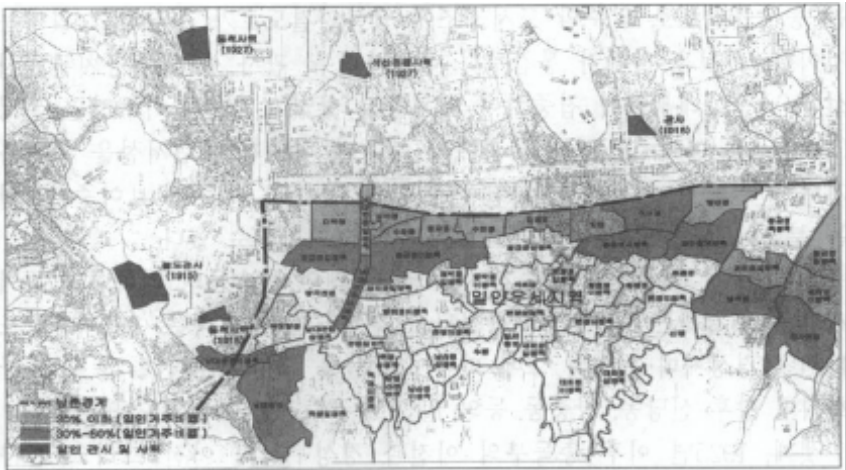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현황²⁰⁾을 통해 본 남촌의 사회적 도시구조

20) 1929년 한국인 거주인구수는 241,096명이고 일본인 거주인구수는 93,272명으로서 당시 한·일인의 비율은 72 : 28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통계연보』 1929) 여기서 한국인 우세지역과 일본인 우세지역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당시의 서울의 한·일인 비율에 의해 일인이 약 30%이상

는 매우 극명하다. 사회적 도시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남촌과 북촌의 지역적 구분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그 경계는 청계천에서 을지로 사이가 되고 있으며 남부는 일인, 북부는 한인 득세지역임이 보이고 있다.

둘째, 남촌의 중심은 충무로일대(진고개~본정 1~5정목), 명동일대에서 인현동 일대(명치정, 영락정, 약초정, 일지출정, 수정, 화원정), 퇴계로일대(남산정, 옥정, 왜성대정, 대화정, 신정)이다. 이를 각 정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보면 남산일대가 일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부록 참고)



<그림 11> 일제시대 한국인·일본인 거주 현황

* 식산은행사택(1927)을 제외한 일인관사 및 사택의 표기년도는 정확한 설립년도가 아니라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를 표기한 것임

해당하는 지역을 일인 우세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손정목의 도시계획연구에서 남촌과 북촌을 구분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한인·일인우세지역을 구별할 때 적용하였던 방식에 의한 것이다. (부록5) 日人득세지역(남촌) 韓·日인구비교(1929) 참고

셋째, 사회적 도시구조도는 앞에서 설명한 도시시설의 배치, 가로망의 배치 등의 경향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주요 시설의 배치는 바로 일본인들의 주거지·상업지에 일어나고 있다.

넷째, 남촌 이외의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일인 거주지를 찾아보면 거의가 주요회사의 사택이거나 관사로 집단적 주거의 형태를 띄고 있다.

4. 일제시대 남촌 및 도성 내 도시구조의 특징

첫째, 일제시대하의 남촌의 도시구조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동서연결도로 위주의 도시구조에 남북연결도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가 통감부나 헌병사령부, 관사 등 일제통치관련시설을 남산아래부근에 집중하여 배치하고 있었고 일본인거주지를 본정(현 충무로)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촌에 식민지 관련시설을 계획하거나 건설하며 이들과의 연결을 원활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는 북촌에 대한 간접적 침투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우선 일본인들의 주거지인 남산일대와 동숭동의 대학병원 등의 시설을 연결하는 동쪽축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축은 그 이후로도 1924년 경성제대 개교와 그에 따른 교수들을 위한 사택건설 등으로 강화되며 향후 신당동, 장충동 등의 일인 고급주거지 개발과도 연결된다.

셋째, 1925년 이후 총독부의 이전과 경성부청의 이전 그리고 관사의 설치로 도성내 서측에도 하나의 일본인들의 권력 및 주거축이 형성되며 남산 아래의 일인거주지와 연결되고 있다.

넷째, 이 같은 진행의 결과 도성내의 도시구조는 청계천 이북 양대궁 사이의 전통적인 한국인 시가지가 동측의 동숭동-남산축, 서측의 총독부-경성부청-소공로-남산축 그리고 청계천 이남 남산 밑 일본인 주거지축에 의하여 U자로 둘러싸인 형국을 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강병식, 1994, 일제시대 서울의 토지연구, 서울, 민족문화사.
- 김광우, 1990,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서울, 향토서울 50호.
-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서울학 연구소.
- 손정목, 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서울, 일지사.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서울, 일지사.
- 손정목, 1989, 조선총독부 청사 및 경성부청사 건립에 대한 연구, 서울, 향토서울 48호.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도시사회상연구 IV.3, 일지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학연구소, 2000,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 서울특별시, 1977, 서울도시계획연혁.
- 서울학연구소, 1997,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역사총서(2)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사편찬 위원회, 1981, 서울 600년사 제4권.
- 이경수, 1991, 일제시기 경성부의 가로정비계획에 의한 가로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은, 1984, 경성부의 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관한 연구 1935년을 중심으로, 지리학 제 29호.
- 통계청, 1994. 7, 통계로 본 개화기의 경제·사회상.
- 고시자와 아기라, 1991, 만주국의 수도계획, 동경, 일본경제평론사.
- 와다나베 순이치, 1993, 도시계획의 탄생, 동경, 柏書房.
- 富井正憲·李美璟, 1987,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근대건축의 기초적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경성시가전도, 1910.
- 경성시가도, 1927.
- 일만분의 일 조선지형도집성-경성, 1915.
- 일만분의 일 조선지형도집성-경성, 1921.
- 지번구획입경성정도, 1936.

■ [부록 1] 시구개정의 경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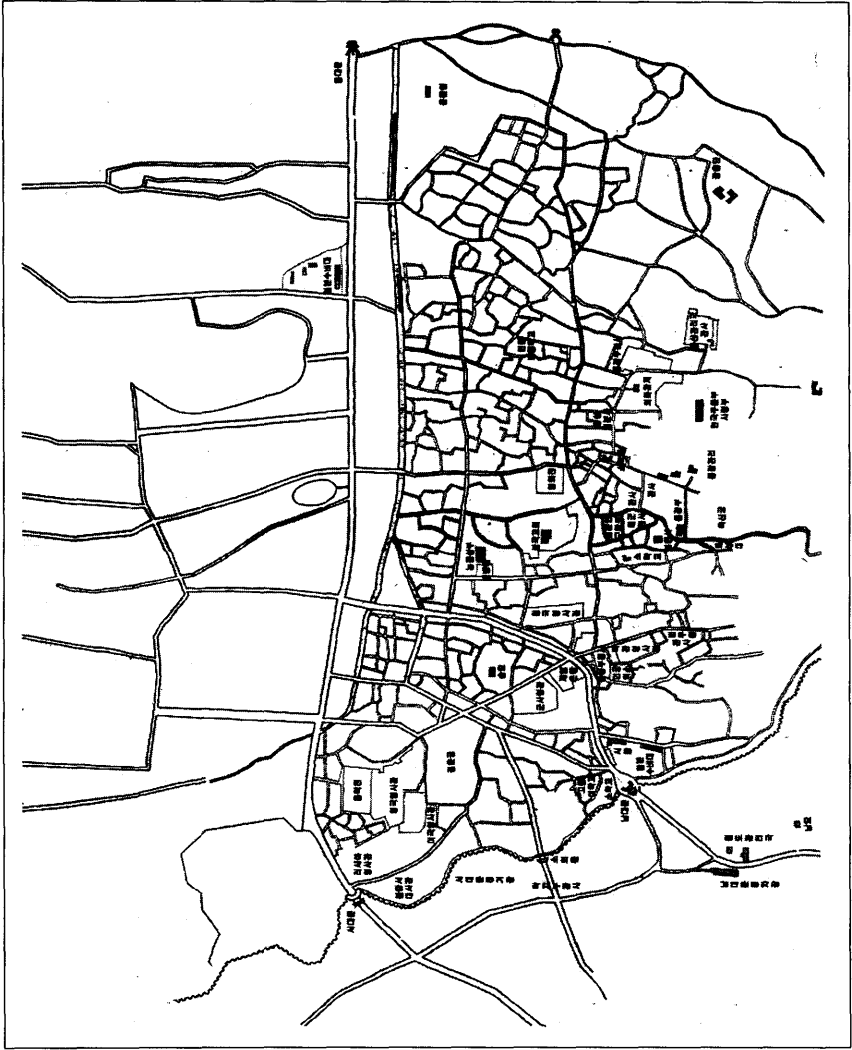
1912. 11. 6 : 총독부고시 제 78호, 29개 지정
1917. 2. 2 : 총독부고시 제 24호, 31개 증가 (2개노선 추가)
- 30번 : 황금정(을지로)~저동 1가
 - 31번 : 동대문 ~ 송인동
1919. 6. 25 : 총독부고시 제 173호, 46번까지
- 3개노선 삭제 (23번, 26번, 28번)
 - 15개 신설, 46번까지 (32번~46번, 주로 도성외, 특히 용산, 마포)
 - 폭원변경 (대체로 확폭, 7, 13, 16, 19, 20, 22, 29)
 - 노선연장 (19, 20)
1922. 8. 29 : 총독부고시 제 204호, 노선변경(22번)
- 22번 : 조선은행앞~남창동~후암동 → 남대문~남창동~후암동
1925. 5. 27 : 총독부고시 제 134호, 총 47번 노선까지
- 2개노선 확폭(12번, 16번)
 - 1개노선 추가(47번 : 적선동~궁정동~청운동),
1928. 7. 9 : 총독부고시 제 264호, 폭원변경(43번)

1) 김기호(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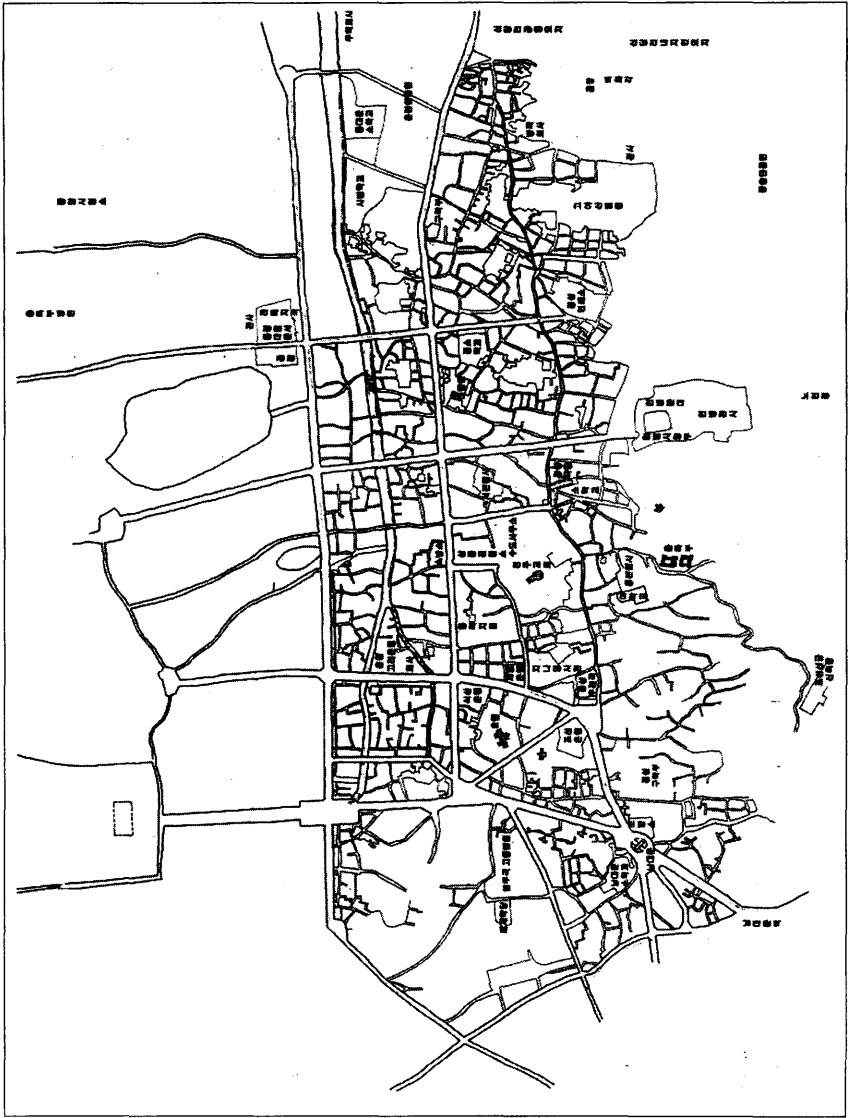
■ [부록 2] 전차노선의 변화 (도성내)

1899. 5 서대문 - 청량리노선
(1899.12 용산)
1901 남대문 - 구용산노선 / 서대문 - 남대문노선
1910 구용산 - 신용산노선
1912.12 황금정선 전차개통
1913.12 왕십리선 전차 운전개시
1918. 6 광화문통 전차 개통
1920.12 서대문~남대문간 전차 개통
1921. 8 동대문~광희문선
1923. 8 종로~안국동
1926. 4 장충단선 전차 개통
1945 총 연장 : 39,906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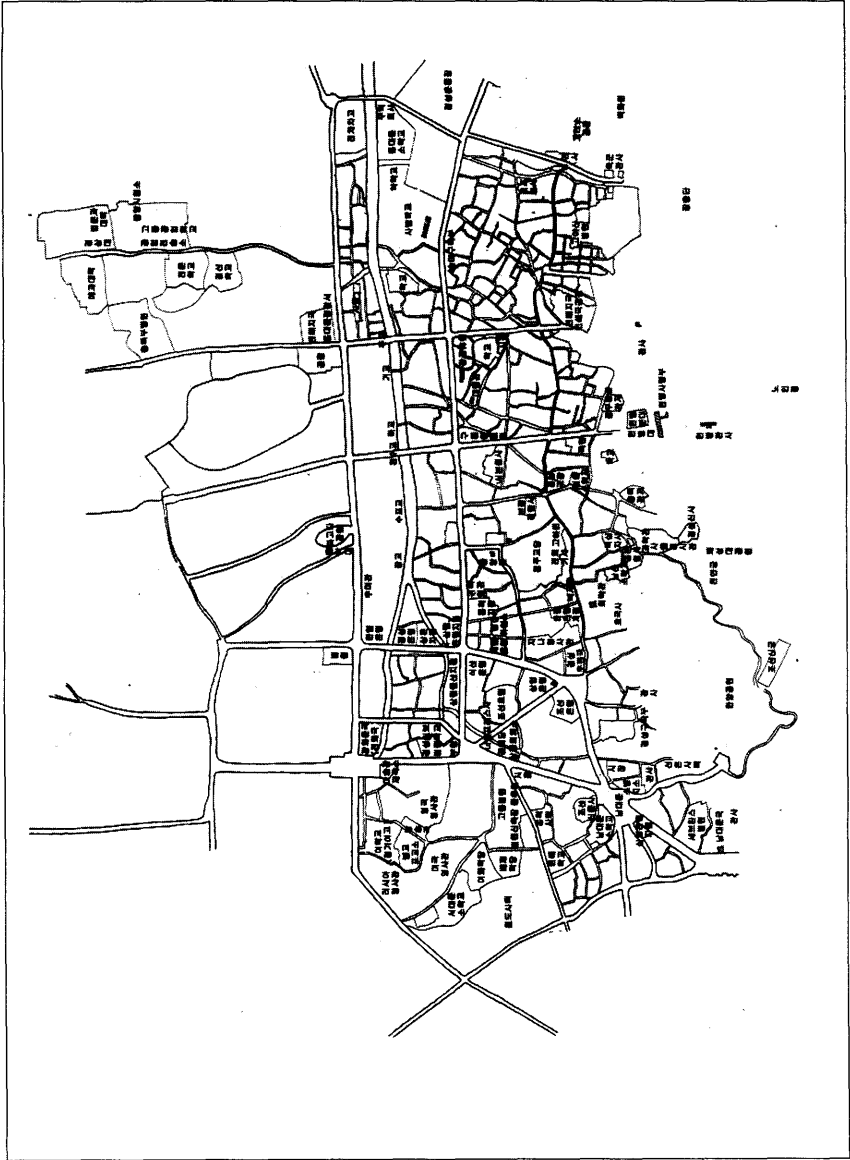
■ [부록 3] 일제시대 도시시설의 입지 (그림1~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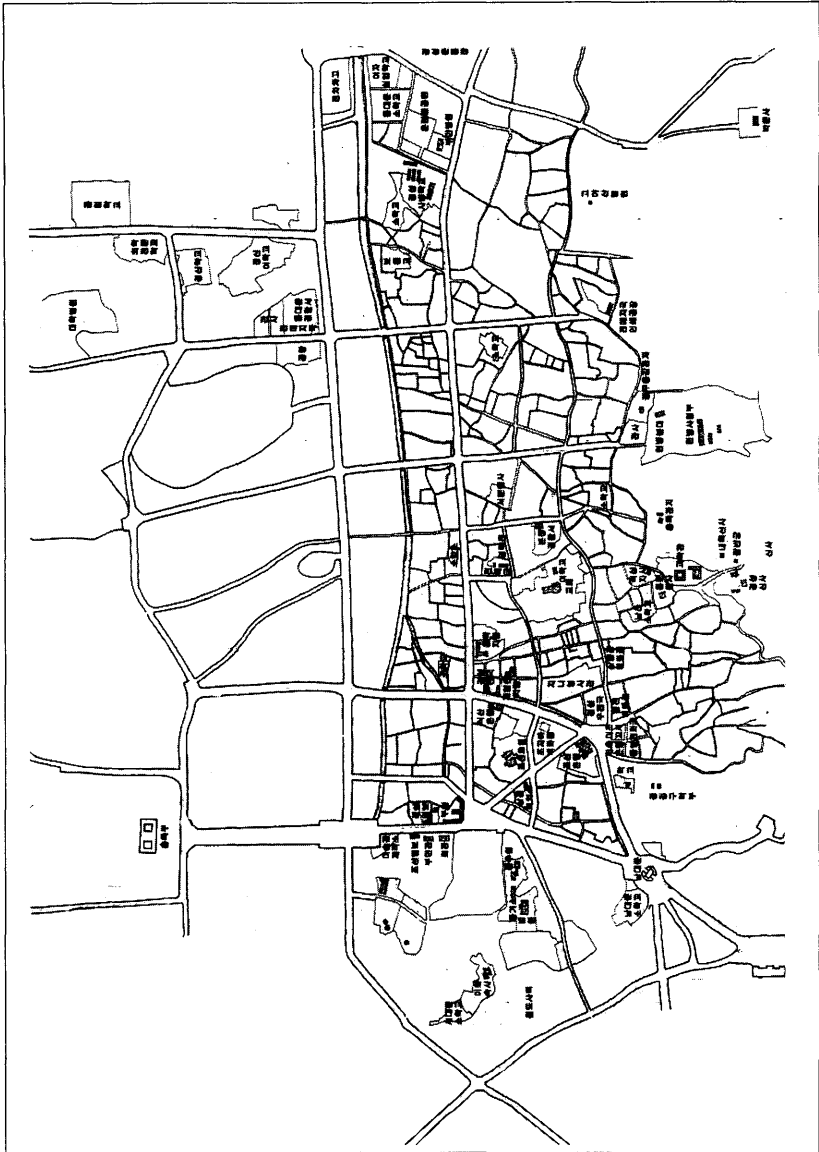
<그림 1> 1910년 도시시설 위치도



<그림 2> 1921년 도시철도 위치도



<그림 3> 1927년 도시철도 위치도



<그림 4> 1936년 도시철도 위치도

■ [부록 4] 일제시대 근대건축물 신축현황



<그림 5> 1923~1925 근대건축물 신축현황도



<그림 6> 1926~1936 근대건축물 신축현황도



<그림 7> 1937~1944 근대건축물 신축현황도

■ [부록 5] 日人특세지역(남촌) 韓 · 日인 인구비교(1929)

동리명	한인 인구	일인 인구	일인 비율	동리명	한인 인구	일인 인구	일인 비율
왜성대정	2	170	98.84	황금정6정목	165	386	70.05
일노출정	5	191	97.45	남대문통2정목	63	113	64.20
수정	45	658	93.60	황금정3정목	1,207	1,985	62.19
남산정1정목	35	483	93.24	남미창정	1,033	1,602	60.80
옥정3정목	20	262	92.91	초음정	1,062	1,628	60.52
대화정2정목	176	1,970	91.80	동사헌정	303	454	59.97
대화정1정목	79	854	91.53	북미창정	534	772	59.11
옥정2정목	112	1,046	90.33	황금정2정목	1,034	1,340	56.44
남산정2정목	86	714	89.25	병목정	1,650	1,800	52.17
본정4정목	278	2,077	88.20	서사헌정	1,047	805	43.47
앵정정1정목	234	1,512	86.60	황금정4정목	1,692	1,204	41.57
대화정3정목	163	1,021	86.23	황금정5정목	957	581	37.78
본정3정목	218	1,272	85.37	주교정	1,569	819	34.30
남산정3정목	74	431	85.35	황금정1정목	984	476	32.60
본정5정목	197	1,139	85.25	남대문통4정목	186	80	30.08
옥정1정목	439	2,438	84.74	수하정	474	161	25.35
신정	242	1,280	84.10	남대문통1정목	267	85	24.15
앵정정2정목	412	1,917	82.31	수표정	695	212	23.37
영락정2정목	225	981	81.34	임정	1,847	524	22.10
명치정2정목	333	1,396	80.74	광희정1정목	1,876	466	19.90
약초정	243	979	80.11	방산정	1,265	266	17.37
영락정1정목	190	759	79.98	장교정	801	158	16.48
명치정1정목	159	621	79.62	황금정7정목	1,299	164	11.21
본정2정목	441	1,571	78.08	입정정	1,909	228	10.67
장곡천정	139	484	77.69	광희정2정목	2,763	184	6.24
화원정	320	1,063	76.86	삼각정	948	45	4.53
본정1정목	220	703	76.16	다옥정	2,149	97	4.32
남대문통3정목	89	282	76.01	합계	34,955	44,909	56.23

(자료 : 경성상업회의소, 통계연보, 소화4년(1929))

* 일본인비율이 높은 정별순

* 日人득세지역(남촌) 韓·日인 인구비교(1929) (지역별로 통합시)

방면	동리명	한인 인구	일인 인구	일인 비율	방면	동리명	한인 인구	일인 인구	일인 비율
본정일대	본정1정목	220	703	76.16	남대문로일대	남대문통1정목	267	85	24.15
	본정2정목	441	1,571	78.08		남대문통2정목	63	113	64.20
	본정3정목	218	1,272	85.37		남대문통3정목	89	282	76.01
	본정4정목	278	2,077	88.20		남대문통4정목	186	80	30.08
	본정5정목	197	1,139	85.25		남미창정	1033	1602	60.80
	계	1354	6,762	83.32	북미창정	534	772	59.11	
평동-쌍림동일대	명치정1정목	159	621	79.62	계	2172	2934	57.46	
	명치정2정목	333	1,396	80.74	황금정1정목	984	476	32.60	
	영락정1정목	190	759	79.98	황금정2정목	1034	1340	56.44	
	영락정2정목	225	981	81.34	황금정3정목	1207	1985	62.19	
	약초정	243	979	80.11	황금정4정목	1692	1204	41.57	
	日ノ出町	5	191	97.45	황금정5정목	957	581	37.78	
	수정	45	658	93.60	황금정6정목	165	386	70.05	
	앵정정1정목	234	1512	86.60	황금정7정목	1299	164	11.21	
	앵정정2정목	412	1917	82.31	계	7338	6136	45.54	
	화원정	320	1063	76.86	주교정	1569	819	34.30	
계	2166	10077	82.31	임정	1847	524	22.10		
퇴계로일대	남산정1정목	35	483	93.24	청계천일대	방산정	1265	266	17.37
	남산정2정목	86	714	89.25		입정정	1909	228	10.67
	남산정3정목	74	431	85.35		수표정	695	212	23.37
	옥정1정목	439	2438	84.74		수하정	474	161	25.35
	옥정2정목	112	1046	90.33		장교정	801	158	16.48
	옥정3정목	20	262	92.91		다옥정	2149	97	4.32
	왜성대정	2	170	98.84		삼각정	948	45	4.53
	대화정1정목	79	854	91.53		계	11657	2510	17.72
	대화정2정목	176	1970	91.80		서사헌정	1047	805	43.47
	대화정3정목	163	1021	86.23		동사헌정	303	454	59.97
신정	242	1280	84.10	광희정1정목	1876	466	19.90		
계	1428	10669	88.20	광희정2정목	2763	184	6.24		
태평	장곡천정	139	484	77.69	동대문일대	초음정	1062	1628	60.52
	계	139	484	77.69		병목정	1650	1800	52.17
						계	8701	5337	38.02

■ [부록 6] 일제시대 도시계획 연표

1911. 4. 17 도로수축표준/도로규칙/
 1911. 4. 토지수용령 제정
 1911. 6. 토지수용령 시행규칙 공포(7.14일부터 실시됨)
 1911-12 을지로가 개수되기 시작
 1912. 10. 7 시구개정 훈령 (총독부훈령 제 9호)
 1912. 11. 6 경성 시구개수 예정노선 고시
 - 43개 예정, 31개 발표(관보 81호) → 5회개정
 → 47개 노선이 됨
 - 1927년까지 47개중 21개 완공
 - 1932년 조사서, 해방전까지 25개 노선 공사가 이루어짐
 1912. 11. 6 : 29개 노선 지정
 1917. 2. 2 : 31개 (30번, 31번 노선 추가)
 1919. 6. 25 : 15개 추가(46번 노선까지), 3개 노선삭제,
 폭원변경 및 노선연장
 1922. 8. 29 : 22번 노선변경
 1925. 5. 27 : 47번 (47번 노선 추가/12번, 16번 확폭)
 1928. 7. 9 : 47번 (43번 폭원변경)
 1913. 2.25 시가지 건축취체규칙(총독부령 제 11호)
 건축물의 신·증·개축, 건폐율, 건축선, 건축물의 재료,
 부대설비, 미관, 화재방지 등을 규제
 오늘날의 개념에서의 방화지구, 미관지구, 준공업지역
 등을 규정 ⇒ 오늘날의 지역제법의 일종
 1913. 토지대장완성
 1913. 5.29 도로취체규칙
 1914. 10.12 지방시구개정에 관한 건

- 1914. 5.30 시가지 건축취체규칙개정
- 1915. 10.29 도로규칙개정
- 1921 경성도시계획연구회결성
- 1922 “조선과 건축”지 발간
- 1926. 4 경성도시계획구역설정서 (경성도시계획 1차안성안)
- 1928 경성도시계획조사서 (경성도시계획 2차안성안)
- 1930 경성도시계획서 (경성도시계획 3차안 성안)
- 1934. 6. 20 (조선, 경성)시가지 계획령**
- 1936. 2.14 시가지 계획위원회의 통과
- 1936. 3.26 도시계획구역
- 1936. 4. 1 총독부고시
- 1936. 12.26 가로망 계획과 토지구획정리지구 발표 (총독부고시)
- 1937. 1.19 구획정리 (번대, 공덕, 청량리, 사근, 한남, 신당, 용두)
- 1937. 2. 2 구획정리 (영등포, 대현, 돈암)
- 1939. 9.18 지역제 확정(총독부고시)
- 1940. 3.12 공원계획 (총독부고시)
- 1941. 3.25 풍치지구 (총독부고시)
- 1941. 조선주택영단 설립

■ [부록 7] 일제시대 남촌의 주요시설 연표²⁾

- 1886? 이화학당
- 1981 배재학당 공사
- 1897 남대문시장³⁾
- 1898 명동성당완공
한성전기회사⁴⁾설립
- 1898? 프랑스공사관
- 1899. 3~ 파고다공원을 짓기 시작
- 1900 경인철도 개통식
- 1900년경 러시아공사관
- 1902 손탁호텔⁵⁾
- 1903 정동 감리교회
- 1904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 → 세브란스>
조선주차군 사령부 설치 <남산기슭 → 1908 용산으로 이전>
- 1905 광장시장개설(종로4-5가)
- 1907 단성사설립
- 1909 창경궁동물원조성

1910-1926 : 전통의 파괴, 역사의 단절

- 1910 장충단 공원
- 1911년경 총독관저
- 1912 조선은행완공 <→ 한국은행>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2000
교석규,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 p.314

3) 남대문시장 : 1896년 가가 정비로 종로와 남대문로 큰 길가의 가가 상인은 일터를 잃게 되었다. 이들을 구제하는 한편 근대적인 상업시설을 만들기 위해 1897.1월에 쓸모없게 된 선혜청창고에 상설시장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근대적 살설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4) 한성전기회사 : 1898년 대한제국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 보스트워의 공동출자로 설립
종로에 자리했던 이 사옥은 1902년 1월 소실됨, 같은 해 7월에 서양식 건물로 개건

5) 손탁호텔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

- 1914 경성부 명세신지도6)
조선호텔
 <남별궁7)→원구단8)→철도호텔(1907)→황궁우만 남음→조선호텔>
- 1915 경성우편국
- 1916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 심슨기념관
- 1917-25 연희전문학교
- 1920년대중반 창경궁 장서각9) : 창경궁 자경전자리에
- 1921 조지아(丁字屋)백화점 : 현 미도파자리
- 1922 미나카이 백화점
- 1923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 파이퍼홀
- 1924 경성제국대학 개교
- 1925? 경성역사
- 1925 조선신궁10) <국사당→조선신궁>
- ? 본원사
- ? 박문사11)

1926-1937 : 식민도시 경성의 명암

- 1926 - 경성부청이전 (조선은행앞 광장→태평통으로)
 <일본공사관→경성부청>
- 조선총독부이전 (남산→경복궁)
 <통감부청사 → 조선총독부=총독부청사:남산 → 1926 경복궁으로 이전>
- 금강상회12):남대문

6) 경성부 명세신지도 :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의 직선화, 방사선화 계획
 식민도시 서울의 중심을 경복궁에서 탑골공원으로 이전함으로써 식민도시 서울의 중심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7) 남별궁 : 중국사신이 머물던 숙소

8) 원구단 : 황제가 즉위하면서 하늘에 맹세하던 곳

9) 창경궁 장서각 : 李王職으로 격하된 구황실의 도서관

10) 조선신궁 : 일본의 전조대신과 명치전황을 모시던 곳

11)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는 것

12) 화신상회 : 종로 육의전 수전인 입전자리에 신태화가 설립한 귀금속회사(1910년대 후반)

- 히라다(平田)백화점
- 경성운동장 : 훈련원 옛 터에 준공
- 1928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건립 <←대한의원>
- 1931 신동아백화점
- 1932 금융조합협회사무소
- 1933 조선신문사
- 동경화재보험(한은별관)
- 三中井백화점(원호청)
- 1934 총독부체신분관(상공부)
- 千代田빌딩(전매청)
- 미쓰코시 백화점¹³⁾완성(1927년 신축) <←경성부청사>
- 1935 동양극장¹⁴⁾:서대문
- 조선일보사옥
- 韓靑빌딩
- 旭빌딩(제일은행 외국부)
- 경성부민관(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 경성부민관(종합공연장) 건립 <→정부수립이후 국회의사당>
- 1936 경성기독교청년회관(일계)(소공동, 현 서울 YMCA)
- 경성세무감독감청

1937-1945 : 총동원 체제와 경성

- 1937 화신백화점(종로백화점)
- 1938 조선빌딩(반도호텔)
- 三井物産경성지점

1931년 박흥식이 이를 인수하여 백화점으로 개축

유창상회(1928) : 한인기업가가 일본인 기업가를 본따 가로변에 지은 신식 고층건물, 화신 건너편
 덕영상점(1930) : 종로 곳곳에 지점을 갖고 있던 일종의 체인점

13) 종로에서의 유통구조 : 김윤백화점(1916), 덕영상점(1916), 계림상회(1918), 동아부인상회(1919), 화신백화점(1937)

14) 동양극장 : 최초의 연극 전용극장으로 정동에 1935년 건축

*1935년경 극장 : 북촌 - 종로의 단성사, 조선극장, 우미관

남촌 - 황금좌, 약초좌, 명치좌, 희악관, 대정관

1939 丁字屋백화점(미도파백화점)
? 조선저축은행 사옥

※경성의 공원 : 탑골공원, 사직공원, 삼청공원, 남산공원, 왜성대공원,
효창공원 6개

※ 일본공사관→경성부청(1926 태평로로 이전)→미쓰코시(1934)

※ 남별궁→원구단→철도호텔(1907)→황궁우만 남음→조선호텔(1914)

※ 통감부청사→총독부(1926 경복궁으로 이전)→과학관

1945년 이후

1952? 퇴계로

1956 신신백화점(이천승)

1957 국제극장(이천승)

1957-61 청계천 복개

1958 국립의료원 건립¹⁵⁾ <←경성부립병원>

1961 서울시민회관(이천승)

1961 정부청사, USOM청사

1961 마포아파트단지 준공

1962 워커빌

1964 예총회관 준공

1967-69 청계고가

1967 세운상가축

1969 삼일빌딩

1970 남산제1터널, 제2터널

1972 남산타워

1978 남산 제3터널

회현고가

15) 국립의료원 : 해방후 서구식 장비를 갖춘 최초의 근대적 종합병원